



제269호 농림부인가 161호 사단법인 흙살림연구소

www.heuk.or.kr

쇼핑몰 http://www.marketoyou.com



2019년 12월[월간]



흙살림은 11월 11일 흙살림청주센터에서 친환경유통센터 착공식을 가졌다. 내년 완공될 유통센터는 충북친환경농산물을 전국의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플랫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친환경농업 확대를 이루겠습니다”

### 흙살림 친환경유통센터 착공식

흙살림은 지난 11월 11일 흙살림 청주센터에서 흙살림푸드 친환경유통센터 착공식을 가졌다. 흙살림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의 청주시 대율지구 사업자로 선정되어 친환경유통센터를 건립하게 된 것이다. 이번 착공식에는 이태근 흙살림 회장을 비롯해 이우균 청주시의원 농업정책위원장, 남광현 충북도 농정국 유기농육성팀장, 송인훈 생산자 대표, 김봉기 전 충북친환경농업인연합회장, 오태광 전 한국생명공학연구원장 등이 참석해 기반구축사업의 성공을 기원했다.

이태근 흙살림 회장은 “오늘 착공식 첫 삽을 뜨게 됐다. 공사가 잘 진행되어서 농업·농

촌·농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는 인사말을 전했다. 이어 남광현 팀장이 “흙살림이 충북도의 대표를 넘어 전국적 대표 유기농 친환경 기업으로 도약하기를 희망하며, 충북도 친환경 생산자가 늘어날 수 있도록 견인하는 역할을 기대한다”는 축사를 전했다. 이후군 의원도 “흙살림이 세계적 기업이 되고, 농민들이 더 잘 살 수 있기를 바란다”고 희망사항을 말했다. 이와 함께 실제 유통센터가 세워지는 청주시 북이면 대율리에서 농사지으며 살고 있는 최종권 대율리 노인회장은 “흙살림과 함께 친환경 농사를 해 보겠다”며 축하의 말과 함께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보탰다.

흙살림은 이번 구축사업을 통해 청주지역 친환경 로컬푸드를 기반으로 친환경 식자재 및 B2C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전문 물류유통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는 1인 가구 증가와 간편 편의식 식품 트렌드 등 새로운 농식품 유통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충청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충북 오가닉CSA 사업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를 위해 사업 참여 농가와 신규 농가의 유기농업기술을 향상시키고, 마케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교육도 추진할 생각이다. 권사홍 흙살림푸드 대표는 “대율리 유통센터는 충북도의 공공재라 생각하며, 충북 친환경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잘 전달하는 플랫폼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 알림

### 2019 흙살림 생산자 모임

흙살림은 흙살림과 회원 생산자간의 협력과 소통을 통해 관계 확대를 모색하는 2019 흙살림 생산자 모임을 갖는다. 12월 13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충북농업기술원에서 충청북도 생산자를 포함 각종 생산자 단체회원 등 약 100명 등이 참가할 예정이다.

이번 모임에서는 2021년이면 30주년을 맞는 흙살림의 역사와 활동을 함께 되돌아보고, 흙살림 농업의 철학과 가치를 되새겨본다. 또한 흙살림 협력사업 원칙과 생산자 기금 제도 등을 제안하며, 흙살림과 회원 생산자간의 상생과 결속을 도모하고자 한다.

흙살림과 회원 생산자 간의 합치된 힘으로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꾀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

- 일시 : 12월 13일 금요일 10시
- 장소 : 충청북도 농업기술원

양질의 유기물과 미생물이 가득한 흙살림 균배양체로 2020년 농사 준비하세요!

#### 친환경 고품질혼합유박

양분파괴가 적은 저온 성형.  
냄새가 다릅니다. 토양살포 후,  
발효가 빠르고 분해가 잘됩니다.

#### 농협 계통



**흙나라유박**  
친환경 혼합유박-펠렛(20kg)  
4.3-1.7-1  
+유기물 70% 이상  
공시-3-3-189

#### 토양관리용 미생물발효유기질

풍부한 발효미생물과 천연양분을 함유하고,  
염류집적 없이 비효가 빠릅니다.  
흙을 살리는 친환경 종합토양관리제.

#### 농협 계통



**흙살림 균배양체**  
고품질토양미생물제(20kg)  
+유기물 40% 이상  
공시-3-3-152

#### 고품질 발효아미노산그래놀

Non-GMO 대두바이 함유되어 질소 및  
양질의 아미노산이 풍부하고 기능성 특허미생물이  
처리되어 토양항균력증진에 도움을 줍니다.



**흙살림 아미노볼**  
아미노산 그래뉼(15kg)  
특허미생물처리(항균)  
7.5-2.5-1  
공시-3-3-191

#### 토양관리용 발효유기질펠렛

기능성 특허미생물이 처리된 발효유기질 펠렛.  
피마자바이 배제되어 리신 독성에서 안전합니다.



**흙나라 발효펠렛**  
균배양체 펠렛형(15kg)  
주장박, 대추박, 부식산 사용  
특허미생물처리(항균)  
공시-3-3-192

## “‘땅의 눈물, 흙의 침묵’을 기억하세요”

### 임옥상 작가의 흙 이야기 흙의 인문학 마지막 강연

흙살림은 지난 11월 14일 충북충북NGO센터(청주시 흥덕구) 대회의실에서 인문강좌 시리즈 ‘흙의 인문학’ 여섯 번째이자 마지막 강연을 열었다. 이번 강연은 민중미술의 대표 작가인 임옥상 씨가 ‘땅의 눈물, 흙의 침묵’이라는 주제로 90여 분 간 진행됐다.

임 작가는 주로 흙을 사용하여 작품을 만들고, 대지의 풍부한 정감을 표현해왔다. 큰 봉사를 이용한 수묵화 뿐만 아니라 손바닥 도장, 발 도장을 비롯해 신체를 활용하기도 하며,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해 왔다. 이번 강연에서는 흙과 관련된 그의 작품과 변천 과정을 소개하였다.

1993년도에 만들어진 <대지-어머니>는 종이작품으로 첫 선을 보인 후, 같은 해 철주물의 형태로 설치되어졌다. 작품 속 ‘어머니’는 땅을 딛고 선 채 조금은 가녀린 듯 초라하면서도 거친 모습이다. 활동 초기 땅을 작품의 소재로 삼았던 시기에서 흙이 자연스레 재료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대지를 어루만지고 그 속에 파묻힌 어머니의 형상화를 통해 생명의 힘도 느끼게 만든다.

2012년도에는 서울 광화문 광장과 세종문화회관에 <이제는 농사다: 광화문 농사로>, <지구를 담는 그릇>이라는 작품을 선보였다. 식물이 자라면서 조형물을 채우거나 덮어가는 과정 모두가 작품이 된 것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흙살림 토종농장(충북 괴산)에서 열린 ‘농사예술제’에서는 포클레인과 트랙터, 삽 등을 활용해 <흙의 얼굴>이라는 작품을 만들기도 했다. 햇빛과 바람,



임옥상 작가가 ‘땅의 눈물, 흙의 침묵’이라는 주제로 흙의 인문학 강연을 펼치고 있다. 아래 사진은 1993년도에 만들어진 그의 작품 <대지-어머니>의 모습.

비를 그대로 받아들여 변해가는 모습 그 자체가 작품인 것인데, 흙을 잊어버리고 사는 현대인들에게 흙의 얼굴을 보여줌으로써 시름시름 죽어가고 있는 흙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게 만든다. 임옥상 작가의 이번 강연은 흙에 대한 깊은 감정으로 작품을 표현해 온 그의 흙에 대한 이야기가 맛깔나게 펼쳐졌다.

### <흙의 인문학 강좌>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흙살림연구소에서 지난 6월부터 진행한 <2019 흙의 인문학 강좌>가 6개월의 대장정을 끝냈습니다. 이번 <흙의 인문학 강좌>는 아마도 국내 최초의 시도였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강좌는 그간 6개월에 걸쳐 시인이 농사일을 배우면서 느꼈던 흙에 대한 감성과 유기농업에 관한 단상(오철수 시인), 최첨단 마이크로바이옴 과학자가 바라보는 흙 속의 미생물 세계와 무한한 개발 가능성에 대한 꿈(오태광 박사), 전통적인 한의학자가 바라보는 치유인자로서의 흙의 효능과 생태적인 가치(박석준 박사), 지역 환경운동가이자 여성 농민이 생활(실천)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경험한 흙과 땅에 관한 이미

지(정구인 작가), 농촌경제 전문가가 바라보는 흙과 농업생태계 사이의 문제(종자주권, 환경보존, 반 GMO 투쟁의 이유 등등)와 그 실천적인 해법 모색(권영근 박사), 그리고 흙의 화가로도 불리우고 NGO ‘흙과 도시’를 통해 흙이 가져다 주는 소중한 의미와 경각심을 일깨우고 다니는 임옥상 화백의 흙에 관한 작품 이야기 등을 듣고 함께 토론하고 생각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흙살림은 이번에 듣게 된 소중한 이 이야기들을 다시 다듬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흙의 인문학 강좌 기간 동안 지속적인 관심 속에 참여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발효부숙촉진용 미생물자재

### 흙살림 골드

발효 및 길항미생물이 다량 함유된  
부숙촉진제. 퇴비발효를 촉진하고,  
유용미생물을 공급합니다.



### 땅심 살리는 퇴비 만들기<24>

#### ■ 부엽토 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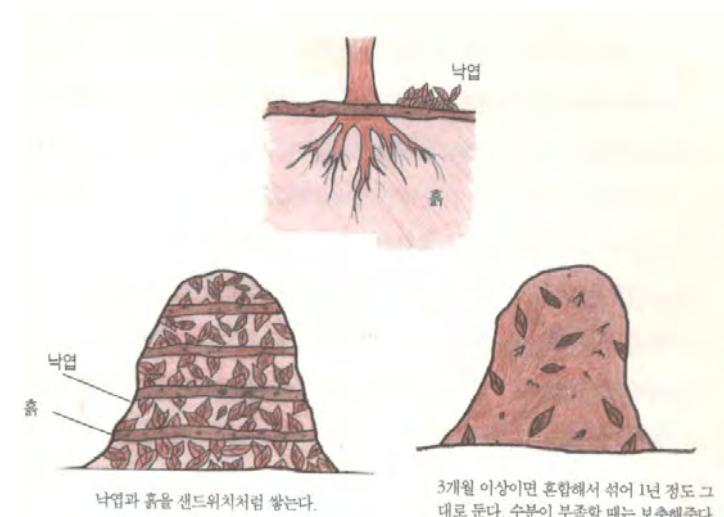
우리는 지금까지 화분에 꽃을 심거나 정원을 조성할 때 퇴비라는 말보다 부엽토라는 말을 더 자주 사용했다. 부엽토란 말 그대로 잎이 썩어서 만들어진 흙이란 뜻이다. 즉, 잎과 흙이 어우러져 미생물에 의해 썩어서 만들어진 흙이라고 할 수 있다.

가장 좋은 부엽토는 참나무(떡갈나무 잎이 최고)나 밤나무 등 활엽수의 낙엽이 부숙되어 엽맥(잎에서 빠대처럼 보이는 것)이 남아 있는 것이다. 참나무가 많은 산에 땅을 파보면 잎은 분해되어 사라지고 엽맥만 남아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런 땅은 통기성도 좋고, 영양분도 풍부하다.

부엽토는 자연이 만든 최고급 퇴비라 할 수 있다. 30여 년 전만 해도 대량으로 부엽토를 만들거나 가져다가 파는 사람도 있었는데, 지금은 찾아볼 수 없다.

그런데 부엽토를 인공적으로 만드는 방법은 별로 어렵지 않다.

### 부엽토는 자연이 만든 최고급 퇴비



3개월 이상이면 혼합해서 섞어 1년 정도 그대로 둔다. 수분이 부족할 때는 보충해준다.

부엽토 만들기

#### ● 재래 방식

① 모아둔 낙엽을 한 번에 파쇄할 수 있으면 더 좋지만, 그렇지 않아도 상관은 없다. 먼저 낙엽을 15cm 정도로 쌓고 오염되지 않은 흙을 낙엽이 보이지 않을 정도(약 2~3cm)로 덮는다. 이렇게 흙과 낙엽을 번갈아 쌓는데, 재료의 양에 따라 면적이 달라져도 높이는 1m가 넘지 않도록 한다. 이때 수분은 약 65% 정도가 되도록 한다.

② 3~5개월이 지나서 낙엽과 흙이 골고루 섞이도록 월 1회씩 2~3번 뒤적인다. 이때 너무 건조하면 물을 약간 뿌리고 1년 이상 그대로 놔둔다. 그래도 파리나 구더기가 생기지 않는다.

③ 부엽토를 만들 때 비를 맞지 않도록 간단한 채양이나 지붕 등이 있으면 더욱 좋다. 또는 큰 통을 이용해도 좋다.

④ 지렁이가 보이기 시작한 뒤 1~2개월이 지나면 훌륭한 부엽토가 된다.

글 석종욱 (사)흙살림연구소 대표

**발행소** 충북 괴산군 불정면 한불로 1136(맹천리 528) | **발행처** (사)흙살림연구소 | **발행인·편집인** 석종욱 | **편집위원장** 정우창 | **편집 위원** 박석준 오철수 | **등록번호** 충북라010-25(1998년 9월 3일) | **본부** (28002)충북 괴산군 불정면 한불로 1136·전화 043)833-8179·전송 043)833-2959 | **오창사무소** (28126)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각리 1길 85(각리 642-6) 오창벤처단지 안·전화 043)216-8179·전송 043)216-2959 | **청주센터** (28138)충북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대율다락마길 93-13·전화 043)212-0935·전송 043)216-0936 | **토종연구소** (28000)충북 괴산군 불정면 쇠실로 286-138(삼방리 186-1)·전화 043)833-5004 | **흙살림연수원** (28002)충북 괴산군 불정면 한불로 앵천6길 11-1·전화 043)833-5004



# 인도에서 유기농의 잠재력을 만나다

## 유기농식품 박람회 ‘비오파’ 참관기

### 다양한 농업기후와 넓은 경작지대 보유

흙살림은 지난 11월 7~9일 인도 멜리수도권 그레이터 노이다(Greater Noida, Delhi-NCR)에서 열린 세계 최대 규모의 유기농식품 박람회인 비오파(BIOFACH)에 참석했다. 아시아유기농청년포럼 한국 대표로 선발되어 참관한 이번 행사는 유기농 제품에 연결된 모든 사람이 매년 유기농 관련 제품에 대한 정보 및 유기농 공통 플랫폼의 네트워크를 공유하며, 유기농에 대해 교육하기 위해 열리는 회의장이다.

인도는 전 세계에서 중국 다음으로 인구가 많은 나라로 광활한 경작지대와 다양한 농업기후 지역을 갖고 있어, 유기농에 관련된 다양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유기농 자재 및 농산물 등 유기농에 관련된 모든 제품을 한 눈에 볼 수 있었고, 흙살림을 위한 상담 테이블을 따로 마련하여 유기농에 관심이 있는

많은 인도 유기농 종사자들을 만나 상담을 진행하였다. 흙살림은 박람회 첫째날과 둘째날 1시간씩 많은 사람들을 만나 친환경 자재 상담을 했다. 인도는 황과 님(Neem) 등 다양한 식물 추출물이 풍부하여 앞으로 상담자들과의 교류를 통해 흙살림 제품의 다양화와 가격의 경쟁력을 도모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 세계 유기농업 지도자들과의 회의를 통해 각국의 유기농 현황과 앞으로 유기농이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 탐색해보는 시간도 가졌다. 흙살림이 세계시장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해보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 한편 이번 박람회는 누름버그메스(Nuremberg Messe)가 주관하고 인도 농산물 수출공사(APEDA)가 공동 개최하며, 국제유기농업운동연맹(IFOAM Organics International)에서 공식후원했다.



(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 유기농식품박람회 비오파의 공식후원인 국제유기농업운동연맹의 홍보 부스.

▲ 이번 비오파 인도(BIOFACH INDIA)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유기농 정보 교류 회의. 각국의 유기농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었다.

◀ 인도 유기농업 종사자에게 흙살림의 다양한 친환경 농업 자재를 소개하고 있다.

## 흙살림 도서에서 살림의 기쁨을 찾아보세요



**생명리듬-시로 읽는 절기 이야기**  
-저자 : 오철주  
-쪽수 : 242  
-정가 : 15,000원  
시인은 절기의 흐름 속에서 어떤 생명적 지혜를 노래하고 있을까요?  
그를 찾아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길을 따라 가본다



**365일 꿀벌 기르기**  
-저자 : 신영미 배지숙  
-쪽수 : 222  
-정가 : 18,000원  
이 책의 상황별 123개 질문과 해답은 양봉을 시작할 때 좋은 길잡이가 될 것이며, 49개의 다양한 읽을거리는 초보 양봉가가 궁금해했던 문제에 대한 해답이 될 것이다.



**흙 살리기**  
-저자 : 이태근  
-쪽수 : 118  
-정가 : 8,000원  
이태근 흙살림 회장이 살아숨쉬는 건강한 흙을 만들기 위해 우리가 생각하고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제안한 글들을 모았다.

\* 전국 각 서점 및 온라인 서점을 통해 구입할 수 있습니다.  
• 구입 및 문의사항 흙살림 출판 사무국 043-833-5004  
입금처 농협 323-01-059315 예금주 사단법인 흙살림연구소



## “균배양체 덕분에 마늘알이 굳어요”

10월 말에서 11월 초가 되면 흙살림 괴산퇴비공장에 찾아오는 단골농부들이 있다. 근처 마을에서 마늘농사를 짓는 농부들이다.

음성군 소이면에서 텃밭으로 마늘농사를 짓는 장씨는 몇 년째 흙살림 균배양체를 구입하고 있다. 1~2포씩 소량으로 구입하고 싶어 하는 주위 아주머니들의 부탁도 있어서 꼭 퇴비공장을 찾는다. 자신의 마늘밭은 물론이거니와 아주머니들에게도 나누어주어 균배양체를 뿐만 아니라 친환경농가가 아니더라도 사용하는 농부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필리핀 등 해외로 수출되고 있는 흙살림 균배양체의 효과가 입에서 입으로 알려지면서 꼭 친환경농가가 아니더라도 사용하는 농부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 추위에 약한 바질은 벌써 비실비실

## 아가씨의 꿈이 자라는 허브 농장<14>

### 민트 종류는 겨울 초입에도 싱싱하게 커

오랫동안 느끼고 싶었던 가을이 금방 끝나버렸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적당한 온도의 공기로 가득 찬 농로를 걸으며 “1년 중 내가 제일 좋아하는 날씨다!”를 외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입동 아침 부는 바람에 벌써 겨울이 묻어 있다. 한 차례, 가을을 몰아내는 비가 쏟아지고 난 뒤 지붕에서 떨어지는 물을 받으려 놓은 물통에 물이 얼어버렸다. 모터는 일찍이 보온재와 비닐로 감아 놓았지만 아직 군데군데 외부에 노출된 파이프가 남아 있어 조금 걱정이 되었다.

날이 추워지면 제일 먼저 바질의 상태가 급속도로 나빠진다. 그 동한 새 잎이 자라는 대로 여러 번에 걸쳐 수확을 당하느라 꽃 한 송이 제대로 피우지 못했는데 겨울을 맞아 조금씩 기운을 잃는 모습에 마음이 아팠다. 지금 자라고

있는 잎이 적정한 크기가 되면 마지막 수확을 한 후 정리를 할 계획이다.

바질과는 다르게 애플민트와 페퍼민트는 아직까지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 오히려 너무 높이 큰 개체들이 줄기가 얇아지는 경향이 있어 적정한 높이로 잘라주곤 한다. 몇 차례 민트에 기승을 부렸던 진딧물은 지금은 거의 없어졌다. 하지만 날이 추워져서인지 일부 끝까지 살아남아 있었던 몇몇 개체들이 날개를 달았다. 하우스 전체에 방충망이 설치되어 있긴 하지만 진딧물이나 온실가루이는 너무 작아서 하우스 창을 열어놓기만 하면 자유롭게 드나드는 것 같다.

일년 내내 허브들이 자라는 하우스에서는 겨울이 되어도 바쁘게 수확 작업이 한창인 반면 과원의 노지에서 크는 블루베리들은 동면 준비에 들



처음으로 대전에서 열린 농부마켓에 셀러로 참여했다. 1년간 농장에서 일한 사진들을 걸어 사진전도 열고, 신선한 허브와 허브차를 만들어 판매했다.

어갔다. 지금 재배하고 있는 품종들이 북부종이기 때문에 겨울이 확실하게 추워야 내년에 튼실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질 무렵 충분히 물을 주고 내년 봄까지 물을 끊어야 하는데, 올해는 정말 하늘이 돋는 지 온도가 떨어지기 직전 3일 동안 비가 충분히 내려서 바로 월동을 시키기로 했다. 이 무렵 블루베리 잎은 모닥불보다 빨갛게 물이 든다. 블루베리 잎에는 열매보다 더 유효성분이 많이 들어있다고 하니

잎이 다 떨어지기 전에 따서 말려놓을 예정이다. 블루베리 밭 근처에 보랏빛 용담꽃이 한창이라, 꽃이 지기 전에 몇 주 캐서 집 앞 마당으로 옮겨 놓을까 했는데 요즈음 여러 가지 일들로 너무 바빠서 시간이 될지 모르겠다.

11월 초에는 처음으로 농부마켓에 셀러로 참여했다. 충청지역 곳곳에서 농장을 운영하는 많은 농부분들과 국내산 원료로 만든 먹거리, 친환경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판매자님들이 모여 대전에서

작은 마켓을 열었다. 아침부터 설레는 마음으로 신선한 애플민트와 파슬리, 메리골드를 따서 아이스박스에 채워 놓고 며칠 전부터 건조기에 말려온 로즈마리, 페퍼민트 건 잎들을 병에 담아 갔다. 물을 끓여 허브차도 만들고, 판매대 주변으로 1년간 농장에서 일을 하는 틈틈이 찍은 사진들을 걸어 작은 사진전도 열었다.

마켓의 주제가 ‘친환경/로컬 푸드’여서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고, 쓰레기를 만들지 않으며 가능한 국산 식재료를 사용해야 하는 규칙도 있었다. 마켓이 열리기도 전에 주변 판매자 분들과 서로 가지고 온 것을 나눠 먹고 다양한 작물을 키우고, 다양한 일을 하는 많은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시간도 가졌다. 개시 후에도 많은 방문자분들이 오셔서 직접 키운 농산물에 관심을 가져 주시니 뿌듯했고 몇몇 분들과는 친구가 되었다. 정성껏 키운 허브들이 부디 많은 사람들에게 소소한 행복이 되었으면 좋겠다.

글 이수진 농부

# 따뜻한 11월 탓에 딸기시들음병 증가

## 가족의 행복을 꿈꾸는 딸기농장<14>

### 물 관리 어려움 또 한 번 실감하는 계절

올 가을은 날씨가 유난히 좋아서인지 11월에도 병이 있어 사들어가는 딸기들이 줄어들지가 않았다. 시들음병은 추워지면 멈춘다는 이야기가 있다. 그러나 죽은 딸기모들은 뽑아내고 다시 보식해주어야 한다. 겨울에 열매를 딸 수는 없어도 봄에는 열매가 나와 줄 것이다.

올해 정식 초반에 딸기모들은 죽어가는 모가 적어서 조금 안심을 했었다. 딸기들은 물과 그리 친하지 않아 물을 조금씩 주면서 건조하게 관리를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딸기들이 조금 뒤쳐지는 모종들이 보이기 시작해서 물을 너무 적게 주었나 싶었다. 솔직히 많이 건조해보이기도 했다. 그래서 물의 양을 좀 늘리기 시작했다. 그러자 이곳 저곳에서 딸기모종들이 시들어가기 시작하고, 잎들이 순차

적으로 말라가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때는 이미 늦었을까. 많은 부분 병이 나타나 죽기 시작했다.

딸기는 보통 육묘 중에 병이 옮겨오곤 한다. 뿌리 부분이 상하거나 하면 병원균이 옮겨오거나 상처난 부위로 습이 많으면 섞어가거나 해서 많이 죽기도 한다. 그리고 딸기를 심을 때 관부가 묻힐 만큼 깊게 심으면 병해가 쉽게 오기 때문에 심는 것 자체가 잘못 되면 큰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

딸기들 잎이 죽어가니 잎 속 아내는 작업도 두 번이나 하고, 런너는 빨리 제거해줘야 딸기 생산에 힘을 쓸 텐데. 올해는 죽어가는 딸기모들 때문에 런너를 보식용으로 남겨 두게 되니 아무래도 딸기들이 힘에 부쳐 딸기 생산도 느



딸기꽃에 바람을 불어주면 수정이 되어 열매가 된다고 했다. 그러니 호박이가 “빨리 딸기야 나와라” 하면서 후~후~ 불어주고 있다.

려지게 되는 것 같다. 올해는 딸기 생산 시기가 이미 늦었다고 생각해서 마음을 조급히 갖지 않기로 했지만 아쉬움이 많다. 겨울에 적게 나오면 봄에 많이 나오게 된다. 딸기는 12월부터 5월까지 생산이 되는데 겨울 딸기 생산이 많아야 소득이 되기 때문에 많은 딸기 농가에서는 겨울 딸기 생산에 최대의 노력을 다하게 된다.

올해 소소한 꽃농이네 농사

간을 두면 누가 어려운 길로 가려 하겠는가. 유기농산물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구조에서 농부들이 직거래만으로는 소득을 내기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어느 누가 유기농산물에 대해 국가가 우선적으로 수매를 해주면 좋겠다고 한다. 오히려 관행 농산물보다 못한 대접을 받는 유통 구조에서는 국가에서 적정한 가격에 수매를 해준다면 유기농산물이 더 많아지고 유기농 인증에 대해 더 많은 농가들이 동참하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유기농산물에 대한 품위나 선별은 따로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자연에 기대어 자연스런 친환경 농산물을 바라면서 깔끔하고 크고 매끈한 농산물만 원한다면 누가 유기농산물을 생산하겠는가. 그런 농산물이 얼마나 되겠는가. 농산물에 대한 생각을 유통에서부터 소비자까지 바꾸지 않는다면 유기농산물은 설 자리가 줄어들고, 친환경 농부들은 점점 줄어들 것이다.

글 이남연 농부

# 고대 그리스의 질서



**박석준 원장의  
농사에 길을 묻다<21>**

인류는 문명사회로 나아가면서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씨족 공동체가 분화되어 부권이 강화된 부권 씨족 공동체로 이행했다. 이 과정에서 남성이 여성을 지배하게 되고 공적인 일과 종교와 같은 정신노동에 종사하는 소수의 사람이 등장한다. 부권 가족제도의 성립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로써 씨족의 공유가 가족의 소유로 바뀌게 되며, 부권 가족의 가장家長은 처자와 자식, 소수의 노예와 모든 가족의 재산을 지배했고 이를 자신의 자녀에게 계승시켰다(가부장제 가족의 탄생).

'가정家庭'이라는 말은 Family의 번역어인데, 패밀리는 라틴어인 Famili에서 나왔고 Famili는 하인이나 노예를 뜻하는 라틴어 Famulus에서 나온 것이다. 어원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고대 그리스나 로마에서 패밀리는 남성이면서 귀족인 주인과 노예 그리고 사실상 노예의 지위에 있는 처자식으로 구성된다.

일반적으로 가정은 특정한 혼인 형태를 매개로 결합된 사회조직의 형태이며 여기에는 군혼가정과 개별 가정이 있다. 군혼가정은 원시시대의 일반적인 가정으로,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가정은 원시사회 말기에 출현한 일부일처제의 개별혼으로 맺어진 개별가정이다. 가정은 동거와 재산의 공유(다만 최종적인 지배권은 가장이 장악한다), 공동식사를 뜻하는 합찬合餐을 조건으로 한다. 이런 조건을 갖춘 가정은 몸

으로 보면 하나의 세포와 같은 최소한의 경제단위로, 계급사회가 성립된 이후에는 국가에 부역과 세금을 착취당하는 기본단위가 된다.

개별가정이 군혼가정과 다른 점은 개별가정의 상위 조직인 씨족이라는 외피가 덜어져 나감으로써 씨족에 부속된 단순한 혼인생활 단위에서 하나의 독립된 혼인, 경제, 사회생활의 단위로 바뀌게 되었다는 점이다. 전근대의 동아시아에서 말하는 가가는 부부와 이들의 부모, 미혼 또는 기혼의 자녀로 구성되며 여기에는 보통 2, 3대의 동일한 혈친血親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비해 '가족'은 가정을 기초로 구성된 동일한 남성 조상의 자손을 가리키는 것으로, 대대로 한 곳에 모여 살면서 일정한 규범에 따라 혈연관계로 결합한 사회조직이다. 가족은 가정으로 구성된 것이어서, 가정과 가족은 단순하게 말하면 개체와 집단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서양걸, 『중국가족제도사』).

원시시대의 모계씨족 가족제도가 가부장제 가족으로 이행하는 것은 동서양 모두 동일하다. 그러나 고대 그리스에서는 씨족 공동체가 철저하게 파괴되어 도시가 건설되었으며 여기에서 '자유'와 '민주'가 나왔다.

고대 그리스가 질서로 나아가는 데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하나는 이 과도기에 다른 민족에 비해 파란 많은 역사적 삶과 운명을 경험했다

는 것이다.

에게해 최초의 문명이었던 크레타는 기원전 2천년 이후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인도민족의 침략에 의해 파괴되었는데, 이들은 에게해 서안을 따라 이동하면서 수많은 나라, 도시국가를 세웠다. 간단히 말해서 고대 그리스는 침략전쟁을 통해 기존의 문명을 파괴하고 그 자리를 차지한 나라다. 그리스는 초기부터 이미 해상 식민지와 무역국을 갖고 있었고 해상에서 도적질하는 역사를 갖고 있었다. 더불어 침략한 지역의 백성들을 대대적으로 이주시켜, 마치 무수한 별들이 나타나듯 도시국가를 만들었고 이들 도시국가는 미케네 왕국이 멸망한 뒤에는 각자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성격의 도시가 되었다.

고대 그리스를 특징짓는 또 하나의 요인은 상품경제의 발달이다. 상품경제가 발달하면서 각 개인의 사유私有는 더욱 강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유를 법적으로 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도덕적인 행위로 인정받게 되었다. 이로써 개인의 부의 추구는 더 이상 부도덕한 일이 아니게 되어 고리대금업과 같은 일에도 뛰어들도록 개인의 끝없는 탐욕을 자극하였고, 대외적으로는 해외 식민지 무역과 약탈, 그리고 전쟁에 나서도록 추동하였다.

고대 그리스의 민주주의는 바로 이러한 과정을 합법화하거나 추진하는 역할을 하였다. 민주주의는 씨족적 귀족통치를 전복시키고 씨족제도의 공동체를 파괴하였다. 그 반대 급부로 민주주의는 자유민=시민의 사유

재산을 합법화하였으며 시민의 권리를 승인하고 보장함으로써 개인과 도시의 발전을 촉진하였다. 민주주의는 물질과 정신(철학만이 아니라 과학 역시 포함된다) 모든 면에서 더욱 광활하고도 자유로운 발전의 터전을 만든 것이다. 물론 그리스의 성취는 오래 가지 못했고 민주주의에 대한 귀족의 투쟁 역시 지속되었으며 마케도니아인과 로마인의 속국으로 전락한 뒤, 다시는 그들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회복할 수 없었다(양적, 『동서인간론의 충돌』).

고대 그리스의 민주주의는 많은 점에서 오늘날 본보기가 되고 있다. 그리스의 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사유를 보장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도시 전체의 생존과 번영의 유지라는 목표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도시의 번영과 시민의 자유로운 발전이 서로 일치되도록 노력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대 그리스의 민주주의는 내부적으로 씨족적 공동체를 파괴하고 사유제도와 상품경제를 전제로 해야 성립되는 것이었으며 대외적으로는 식민지에 대한 착취와 약탈전쟁을 통한 부를 토대로 자랄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이러한 문제는 오늘날의 민주주의에도 마찬가지라고 하겠다.  
글 흙살림 동일한의원 원장, 동의과학연구소 소장

## 흙살림 대용량/축사용 군배양 톱밥

국내산  
100%

국내산 천연목재만으로 만든 톱밥입니다.  
흙살림군배양체를 첨가한 친환경 제품입니다.  
통기성 및 약취제거 능력이 뛰어납니다.

### ■ 제품의 특징

수분함수율(%)	37~38%
용 도	축사 깔개용, 퇴비용, 음식물찌꺼기 퇴비화 등
포장단위	톤백, 마대자루, 벌크
품 질	잔류농약검사를 마친 1등급
가 격	전화문의

### ■ 사용방법

- 양계장 5~10cm, 우사 10~30cm, 돈사 6~10cm 정도 덮어줍니다.
- 매 2~3일 마다 발효톱밥을 배설물 위에 덮어줍니다.
- 가축이 발효물을 섭취하기 때문에 매 7일 정도마다 발효톱밥을 소비된 만큼 보충해줍니다.

### ■ 포장단위



마대



톤백



벌크



흙살림  
HEUKSALIM

충북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대율다락말길 93-13  
www.heuksalim.co.kr

구매문의  
043-216-2958

신제품

## 각종 행사 참여 활동



### 논산청년농부영농조합법인 선진지 견학

논산청년농부영농조합법인이 지난 10월 31일 선진지 견학을 위해 흙살림청주센터를 방문했다. 친환경농산물 유통과정을 보고, 친환경농자재 생산과 활용에 관해 묻고 답하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 '호아빈의 리본'과 함께 농부시장 참여

흙살림은 11월 23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지난해 장학금 지원 업무협약을 가졌던 (사)호아빈의 리본과 함께 '얼굴 있는 농부시장'(이하 열장)에 참여했다. 열장은 서울 도심에서 열리는 직거래 장터로 친환경 먹거리와 청년농부, 가족 농부 등 다양한 생산농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 서울시 영양사 친환경농산물 산지 체험

서울시 영양(교)사 30여 명이 11월 23일 친환경농산물 산지 체험행사를 가졌다. 서울시청, 서울친환경유통센터가 주최하고 흙살림이 협조한 이번 행사는 '농업인에게 희망을! 꿈나무에게 건강을!'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영양(교)사들은 음성무농약 사과작목반과 충주의 한라봉 생산농가를 찾아 농산물을 수확하고, 급식농산물 공급의 어려움과 해결점을 모색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흙살림은 11월 11일 농업인의 날 기념식 및 추수감사제와 함께 로봇팔(왼쪽 작은 사진) 고사식을 진행했다.

## 농업인의 날 기념식 및 추수감사제

흙살림은 지난 11월 11일 농업인의 날을 맞아 흙살림 괴산공장에서 기념식 및 추수감사제를 지냈다.

이태근 흙살림 회장, 조희부 괴산 한 살림 고문, 성기남 음성친환경농업인연합회장, 김관식 한살림 괴산생산자연합회장 등이 참석한 이번 기념식에서는 괴산의 흙살림 농장에서 올해 수확한 친환경 쌀과 호박, 표고버섯 등을 상에 올려놓고 풍년농사에 대한 감사의 제를 올렸다. 김관식 회장은 "흙살

림을 비롯해 친환경농부와의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시키자"며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희망했다.

한편 이날 기념식과 함께 흙살림 괴산공장에 새롭게 설치한 로봇팔의 무사고 생산을 기원하는 고사식도 진행됐다. 성기남 회장은 "로봇팔로 친환경농자재 생산이 들어나기를 바라며, 한편으로 사람냄새 나는 정으로 함께 가는 삶 또한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축하의 말을 전했다.

## 흙살림 충주지역 생산자 모임

흙살림 충주지역 생산자 모임이 지난 11월 5일 충주시에서 있었다. 토마토를 재배하는 임형락, 정방현 씨를 비롯해 레드향, 사과 등을 재배하는 지역 농가 약 15명이 모여 품질 높은 생산과 유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 한국유기농인증원

한국유기농인증원은 좀 더 나은 농업농촌을 생각하는 소비자들과 친환경농업농가의 참여로 자립하는 인증기관입니다. 친환경농업에 대한 신념과 철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친환경농축산물, 유기식품, 취급자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유기농인증원의 전문적이고, 깐깐한 인증시스템을 통해서 소비자들이 더욱 신뢰하는 친환경농업, 농가에게 희망이 되는 친환경농업을 만들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청주지점 주소 (28119)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로 20, 거목빌딩 408-2호  
전화 043-715-9526



# ‘서울 친환경급식 10년’ 지속가능성은?

## 심포지엄 참석해

## 새목표 방안 제시

흙살림은 지난 11월 1일 서울시청 서소문별관에서 ‘서울 친환경급식 10년, 성과와 과제’ 지속가능한 친환경급식을 위한 심포지엄에 참석(사진)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충북도내 친환경급식에 참여하는 농가들과 함께 참석했으며, 친환경급식의 성과와 개선점 등을 논의했다.

권사홍 흙살림푸드 대표는 “생산자단체 입장에서 볼 때 서울친환경급식의 지난 10년은 생산자 중심의 공급체계가 구축되고, 친환경농업에 적합한 운영방식이 정착되는 과정이었다”고 평가하였다. 그리고 “향후 10년은 ‘유기농, 친환경의 가치를 담는 학교급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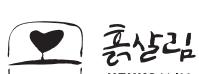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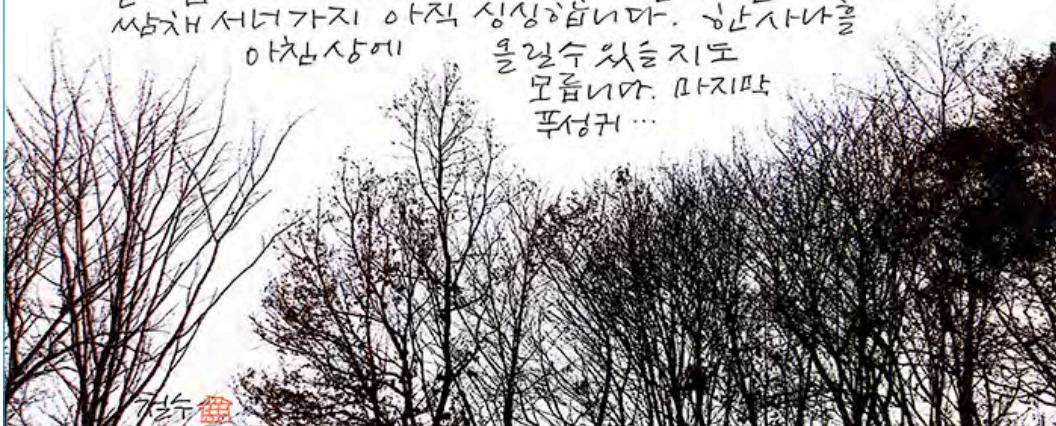


이라는 새로운 목표와 방향을 설정해, 생산자는 생태환경 보전이라는 근본적 가치에 맞는 농사를 짓고, 소비자는 이 가치와 생산과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소비하는 공동체적 관계를 형성하는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고 제안했다

## 이철수 판화가의 나뭇잎 편지

### 겨울채비 하는 거지요

보는 빛을 빙긋하고 밤초록도 깊어 내립니다.  
동사만하고 사는 사람도 아니어서 금하지 않은 일은  
조금씩 틈틈이 하게 됩니다. 기온도 내려가고 바람도  
차가워서 마음이 빠빠집니다. 뒷동산에 선 나무들도  
눈이 아련히 져갑니다. 겨울채비하는 거지요. 사람도  
그치마를 풀거나 따뜻을 내고 옷에 흙을 묻습니다.  
아내는 김장하고 남은 대파를 뽑아 비료부대에  
들어 둡니다. 쪽파는 버려두었지만 봄에 쓰라고 험합니다.  
쓰면서 서너 가지 아직 싱싱합니다. 낭사나흘  
아침상에 올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마지막  
푸성귀…



## 이온규산 코시 액제 500cc 수용성 규산

### 특징

- 규소 고함유 천연규석, 고열(1650°C)처리
- 작물 흡수력(99.9%)과 효과를 높인 수용성 규산
- 살균 · 살충제 살포시 흔용 가능(항공, 드론 방제 최적)

### 효과

- 열과 감소, 고온피해 감소
- 당도 및 저장성 증가
- 병충해 예방 및 뿌리발달 촉진
- 수량증가, 비대, 도장억제
- 광합성 증가(사과잎 직립), 식감 향상

- 등록 번호 : 공사-2-4-084
- 사용 방법 : 1,000배 희석액 업면 시비
- 대상 작물 : 벼, 포도, 사과, 인삼, 고추, 토마토, 수박 등



구입 및 문의사항(주)흙살림 043-216-8179



## 흙살림, 영동군친농연과 업무협약

흙살림은 지난 11월 21일 영동군농업기술센터에서 영동군친환경농업인연합회, 농업회사법인 거담(주)와 함께 충청북도 친환경 유기농업의 상생 비즈니스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위 세 단체는 영동군 친환경농업 발전과 상호 이익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하였다. 흙살림은 유기농 기술교육과 정보제공, 친환경농자재 공급 등 유기농 기술증진을 위한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영동군친환경농업인연합회원은 흙살림 농법에 따라 안전하고 우수한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흙살림 유통사업을 통해 판매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새로운 상품 개발과 상품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판매 확대를 위한 공동의 홍보마케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약속했다.

## 흙살림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개인 및 법인 등 단체 후원도 가능

친환경농업 교육 및 컨설팅, 유기농 정보제작, 친환경농업 연구 등 흙살림연구소의 주요 활동은 후원금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흙살림연구소의 정기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지는 생명이 숨 쉬는 땅을 만들기 위한 한 틀의 밀알을 뿌려주세요. 후원금은 친환경농업기술정보제작, 토종씨앗 보존 및 전파등 우리흙과 농업과 환경을 살리는 일에 소중하게 쓰일 것입니다.

문의 : (사)흙살림연구소 사무국 043-833-5004. 후원금 및 회비 납부처 : 농협 351-0763-0949-03. 사단법인 흙살림연구소.

### ■ 흙살림 후원회원 명단

강사영, 강승희, 고진환, 구현수, 권득산, 권사홍, 권오전, 김광부, 김규운, 김기현, 김남운, 김대수, 김대화, 김동연, 김동진, 김만수, 김명실, 김봉기, 김생수, 김수식, 김수철, 김숙원, 김영권, 김영란, 김영철, 김원섭, 김정송, 김준권, 김중상, 김홍대, 김행숙, 나기창, 나종연, 도재천, 라병현, 라양재, 라영환, 민성기, 박건혁, 박기활, 박동윤, 박상일, 박승인, 박영구, 박영옥, 박정국, 박정규, 박종삼, 박종수, 박종원, 박종희, 박준순, 반명수, 방미진, 방영식, 백미숙, 백운남, 서성내, 서순악, 서우중, 서정수, 석종욱, 선호균, 성경숙, 성기남, 성운제, 송기봉, 송동흠, 송미선, 송영환, 송인훈, 송지은, 신동우, 신문수, 신미영, 신연관, 신종하, 신치영, 신현식, 심민보, 심정섭, 안정태, 염선업, 오과칠, 오복수, 오영세, 원희성, 우범기, 우종서, 원순자, 육종식, 윤국현, 윤성희, 이기출, 이명순, 이명환, 이민채, 이봉휘, 이성원, 이수일, 이수현, 이연호, 이영민, 이영희, 이완호, 이일웅, 이재형, 이정필, 이준규, 이차원, 이철민, 이태근, 이필규, 임동영, 임원택, 임진수, 임현구, 임형락, 장동철, 장명숙, 장세규, 장소애, 전종화, 전홍탁, 정구홍, 정규원, 정규태, 정경태, 정기환, 정명순, 정병현, 정석조, 정쌍은, 정 은, 정인숙, 정정신, 정창조, 정청천, 조기진, 조 솔, 조정인, 조중기, 조현국, 주윤식, 주현경, 진필경, 천호균, 최경주, 최관호, 최금열, 최병국, 최재학, 최춘식, 한정화, 허상오, 흥석민, 흥용기, 흥종윤, 황기하, 황대호, 황영희, 흥인걸

(주)ACT정다운여행사, 가림다마을영농조합, (주)세인, (주)제일그린산업, 한국※기부금 영수증을 원하시는 분은 다음 연락처로 연락바랍니다. 070-4035-5979

### ■ 11월 흙살림 주요 활동

날짜	장소	구분	인원	내용
1일	서울	행사		서울 친환경급식 10년 성과와 과제 -지속가능성을 위한 심포지엄
5일	충주	행사	20	흙살림 충주지역 생산자 모임
11일	청주	행사	60	흙살림푸드 친환경유통센터 착공식
11일	괴산	행사	30	농업인의 날 기념식 및 추수감사제
14일	청주	강좌	40	흙의 인문학6 - 임옥상 화가
16일	청주	교육	35	청주시농업기술센터 천연자재 만들기
21일	영동	행사	30	영동군친농연, 거담(주)와 업무협약
23일	서울	행사		‘호아빈의 리본’과 얼굴있는 농부시장
23일	충주	행사	30	서울시 영양사 친환경농산물 산지체험
26일	괴산	교육	34	익산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인대학